구원의 잠수함 시대를 살자

(요나 1장 1절~17절)

1.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5.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사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8.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10.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구원의 잠수함 시대를 살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구원의 잠수함 시대를 살자'

구원의 잠수함은 '구원의 방주'라는 단어를 의식하여 만들어본 말로써 요나를 집어삼킨 바다의 큰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장의 17절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 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삼 일을 갇혀 지내는 동안에 드린 기도입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의 연관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요나의 사건을 예표로 삼아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삼일간 물

고기 뱃속에 갇혀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삼일 간 계실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요나를 통해 마음속에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바다 속 물고기에게 삼켜진 요나와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의 죽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삼일 만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듯이 삼일 만에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즉 십자가 생활화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안에 들어갔다가 삼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추어지는 요나의 기도는 십자가 생활화는 왜 해야 하는지, 십자가 생활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 생활화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보다 잘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5절까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이 알려지자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기 직전까지의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참 짧은 순간이지만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또 5절을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사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허우적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가라앉으며 해초에 몸이 엉켜서 탈출할 수 없는 위기를 겪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작 몇 분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해녀들도 기껏해야 3~4분을 견딜 수 있을 뿐인데 요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더욱 짧았을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겪은 일이 표현되고 있는 두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환경적 상황을 가리킨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종종 바다로 표현합니다. 이 바다에 빠진 요나의 상황은 세상에 빠져 사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사오며'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나 사건 같은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까지 지배되고 압도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돌멩이를 강물에 던지면 빠지는 것이 당연하듯이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의 조건과 문제라는 환경 속에 빠져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마음까지도 세상에 압도되고 정복되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 자체는 십자가생활화를 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이 상황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그 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깊은 바다에 빠져서 질식해가며 허우적대는 순간적 상황을 하나님 목전에서 쫓겨난 상황으로 이해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적인 문제나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장악되고 압도당합니다. 이때에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사람은 먼저 관점의 차이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마치 요나가 바다에 빠지듯이 이런저런 삶의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벌어지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문제의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여 문제로 삼은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육체가 처한 환경보다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관점의 차이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문제에 장악되고 빠져들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혀 다른 초점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상황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좋고 더 복되고 더 행복한 상황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호와 경외를 위해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여호와 경외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로써 미워하는 마음 밑바닥에 감추어진 사랑하는 것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경외의 기본 단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기본이 바로 문제의식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삶에서 주어지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의 차이가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몸과 마음이 가족 문제에 빠져 압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 가족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라는 기도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대하지 못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문제입니다.
가족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돈이나 건강 등에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요나가 이러한 상황

을 마주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을 근본적인 문제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무척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신앙을 좌우하고 인생 전체의 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따르자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음을 문제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른 대처를 하면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게 될까요? 풍랑이 멈추었기에 뱃사람들도 살아남았고 요나도 죽을 위기를 겪었으나 결국 육지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다에서 일어난 풍랑 자체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나 건강 혹은 가족 문제 등으로 삶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도 문제이고 안 일어나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십자가 생활화의 출발점은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내 마음에서 커튼처럼 작용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발점에 서기 위한 구체적인 대답이 4절 하반부에 이어집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상황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문제의 바다에 빠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상황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기 위해 성전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으면 삶의 환경적 풍랑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순서가 결코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풍랑을 잦아들게 할 수 없거니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요나가 분명히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져서 몸은 해초에 감겨 질식해서 죽을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문제시한 것은 바다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을 문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생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좀 드물니다만 십자가 생활화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삶에서 주어진 문제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함으로 마음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야 말로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이고 사탄의 술수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실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사실로써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사실은 2차 3차로 미루어놓고 오직 이 세상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것을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정말 큰 오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내 곁에 살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연관하여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LA를 방문했을 때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모든 분들과의 대화에서 느꼈던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에 비현실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지가 10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이민생활을 하다가 장인어른의 권유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농사를 지어서 한인 마켓에 채소를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기에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땅을 200에이커를 빌리는데 6,000달러 세금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4만 달러가 나갑니다. 먹고 사는 것 제외하고도 46,000달러의 지출이 생기기에 결국 한국에 남아 있던 빌딩까지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빌딩을 판돈에서 10만 달러가 남게 되었는데 이마저도 어떤 교회 장로님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10만 달러를 되찾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마음이 그 일에 묶일 수밖에 없으리라 여겨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 복음방송을 들으시며 깨달으신 대로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리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 때에 든 생각이 지금까지 재산을 다 날렸는데 하나님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10만 달러를 마저 잃더라도 하나님은 잃지 말자는 결심이 생겨서 소송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십자가 붙잡기를 계속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듣게 되신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이 분을 크게 비판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10만 달러를 사기를 당했으면 소송을 해서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답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런 말을 하느냐고, 소송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서 잃어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분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소송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붙잡으셨습니다. 결국 200에이커 땅을 포기하고 40에이커로 줄여서 농사를 짓게 되었고, 한인 마켓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느라 또 하나님을 잃을까 염려되어서 다 양보하고 작은 마켓에만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보하며 사업을 하는데도 빚이 하나도 없는 상황까지 재정이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대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비현실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현실이라고 여기며 살아온 일이야 말로 비현실일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사기를 당하며 살아온 결과입니다. 사기를 당할 때에는 사기 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닥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관점대로 보자면 문제는 돈이나 결혼 혹은 자녀라는 상황의 해결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들이 커튼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나가 물에 빠져 죽게 생긴 상황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라는 기도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마음을 문제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중에도 성전을 바라보고자 했고 그 때에 하나님은 준비하신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살려내십니다.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이유는 성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기 위해 허락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법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지나 성소 바깥에는 번제단이 있어서 날마다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마음이 지성소와 같은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외의 어떠한 이름도 담기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삶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나 이루고 싶은 꿈이나 포부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상번제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양과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바로 요나를 삼킨 물고기로 비유되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무덤 속에 묻히셔서 삼 일을 계셨습니다. 이 무덤에서의 기간 또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온 지구를 덮었던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한편 요나는 오히려 바닷물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가라앉은 상태에서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사건을 두고 구원의 잠수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죽게 된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바다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조차도 성전을 바라보기로 한 것입니다. 성전의 상번제를 떠올리며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하나님 외의 대상들에 대해서 어린양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삶의 바다에 빠졌을 때에 찾아야 하는 것은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구원의 잠수함입니다. 이 구원의 잠수함이자 큰 물고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바다 속에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킴으로써 바다와 격리될 수 있었던 것처럼, 문제와 과제와 사건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황들에 의하여 마음이 압도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문제나 상황들이 커튼이 되어

하나님을 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요나와 같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에 삼켜짐으로써 바다 속에서 바다를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요나는 죽음의 상황에서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성전의 상번제에서 드려지는 어린양의 죽음을 스스로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죽음은 큰 물고기로 나타났고 바다에 대해서 죽은 요나를 바다 속에서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바다 위의 모든 선원들과 승객들도 무사할 수 있었고 요나 또한 살아서 뭍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원리가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십자가 생활화의 위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굳이 큰 문제가 다가오기를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문제가 닥쳤을 때에 문제의 바다 속에서 큰 물고기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요나와 같이 물고기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부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지는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풍랑이 잔잔해 졌듯이, 나를 빠뜨리고 마음을 압도했던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의 잠수함 시대를 살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잠수함 시대를 함께 열어 가시면서 어디에 살든지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십자가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요나가 물속에 빠진 급박한 상황에서도 성전을 바라보고자 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생활화를 함으로써 구원의 잠수함 시대를 여는 선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